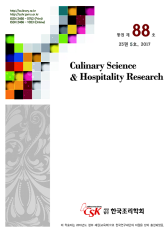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3(5), 34-47; 2017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Culinary Society of Korea (http://www.culinary.re.kr/)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https://cshr.jams.or.kr/



http://dx.doi.org/10.20878/cshr.2017.23.5.004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효능감과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채현석†

동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전공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service Management

Hyun-seok Chae†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Tongwon University

KEYWORDS

Major selection motivation, Career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arried out to 209 college student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ir major sele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reer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But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career efficacy as a mediator - which improves their major selection and major satisfaction - was partially adopted. Consequently, their internal and external participation motivation for their major selection is a facilitating mechanism to maximiz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use as a mediating variable of their career efficacy.

1. 서 론

대학생활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으로 앞으로 전개될 개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 삶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졸업 후 직업의 선택이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Bang & Park, 2014; Kim & Yoon, 2016).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수업을 통한 진로결정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있다. 전공선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그 전공에 대한 정보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한다.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개인이 추구하는 미래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불일치하면 학업부적응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전공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대학생활에 있어 전공불만족은 진로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여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뿐만 아니라, 진로효능감과 더불어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 Corresponding author: 채현석, cookritz@hanmail.net,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동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전공

다(Han, 2008; Lee, 2011).

이처럼 대학에서의 전공은 각 개인의 대학생활, 미래의 직업, 더 나아가 미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Kang, 2005). 이 같은 대학 전공 선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확실한 비전 없이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택하고 있고(Kim & Moon, 2005),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도 적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시기인 대학에서의 전공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그 결과, 대학 진학 후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전과를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Nam, 2008).

학생의 대학진학 및 전공선택과 관련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의적이다. Kim(2012)은 직업선택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교육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나타냈듯이 전공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선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정배경과 학생의 개인특성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Jang, 2000). 그밖에 대학 선택 영향 요인(Seo, 2013)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공선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내부적인 동기가 중심을 이루고, 특히 내재적 동기는 높은 수준의 학습과 직접적인 창의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Kim, 2010)이며, 특히 외재적 동기는 진로효능감이나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변수로서 유용성을 갖는다(Kang, 2005).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선택에서 적성, 흥미와 같은 내재동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월급,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인 외재동기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의 젊은 층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Statistics Korea, 2015), 관련 연구 또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적성과 일치하는 경우, 자신의 적성에 맞고 전공 만족도가 높으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진로계획 또한 높은 진로효능감으로 전공과 일치한 진로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n, 2012). 그러나 반면 전공선택 동기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전공선택이 적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전공 불만족과 동시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구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공선택 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진로효능감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Kim & Im, 2013).

이와 관련하여 20's laboratory of Daehaknaeil(2013)는 전국 4학년 이상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0.5%가 기업 입사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공선택을 후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61%(244명)가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이나 졸업유보를 신청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해당 전공에 대한 탐색과 이해, 그리고 미래의 직업과 전공과의 연관성 등에서 깊은 고민과 탐색 없이 단순 취업조건이나 주변의 권유, 성적만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Han, 2014).

이는 Statics Korea(2015)에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다(36.9%)가 불일치한다(38.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선택과 진로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대학생 시기는 직업선택을 하기 위한 실천단계로서 구체적인 직업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전공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점에서 전공선택과 진로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행동의 선택과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진로효능감은 과거의 성공적 경험이 있을 때 형성되는 완수경험, 타인의 관찰을 통한 대리경험, 격려를 통한 사회적 설득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의 경험적 정보를 통해 획득하거나 수정된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지각된 진로효능감은 현재와 미래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유형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 Oh, 2013).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나 전공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진로효능감의 매개에 따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공선택과 진로관련 연구가 따로 따로 접근되어 이의 매개에 따른 전공만족의 충족과 동시 진로 결정이나 전공에 부합한 자신감을 충만시키기 위한 진로효능감의 매개적 접근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효능감과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인과관계를 밝혀, 조리외식 전공 학생의 진로지도와 전공교육을 설명함과 동시에 추후 전공 수업지도와 진로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와 그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은 '학생들이 각 학과의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신과 전공의 특성이 최대한 일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Im, 2006). Lee와 Jung(2009)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선택은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나 적성, 흥미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 및 교사, 친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며, Im과 Son(2000)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 또는 전공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라 하였다.

전공선택 동기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개인적인 특성인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Sin, 2012)으로 나타났지만, Lee(2007) 및 Kim과 Yoon(2016)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개인의 가치관과 적성, 흥미는 전공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Kim et al., 2010),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Lee, 2007; Kim et al., 2010). 또한, 전공선택을 개인적 특성, 가정적, 사회・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및 선택기준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Han, 2014).

Lee(2007)는 개인적 동기로서 내재적 요인(개인의 적성, 흥미, 장래에 하고 싶은 일에 도움), 사회적 동기로서 외재적 동기(취업전망과 주변의 권유, 전공 공부의 난이도, 전공의 인기도)의 2개 요인으로 나타냈다. 또한 전공계열에 따라 전공선택 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Sin(2012) 또한 전공선택의 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환경적 동기)가 취업 준비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 동기로서의 내재적 동기가 학습태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소질로서 내재적 요인의 적성보다 유망직종이나 취업률이 높은 직종과 관련된 외재적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사회전반에 직업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Ko & Kim, 2013). Song(2014), Sin(2012)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내재적 요인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보다 외재적 요인의 명성과 합격위주의 진학을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전공과의 불일치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학창시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탐색의 시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올바른 직업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내・외재적 동기의 적절한 활용과 적용의 중요성을 갖는다.

2.2. 진로효능감

진로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써 행동의 선택과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진로효능감은 과거의 성공적 경험이 있을 때 형성되는 완수경험, 타인의 관찰을 통한 대리경험, 격려를 통한 사회적 설득,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의 경험적 정보를 통해 획득하거나 수정된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지각된 진로효능감은 현재와 미래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유형과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2012).

진로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1997)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발달 모델에서 진로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유용하다는데 근거하여 '진로선택과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치며,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로 발달 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진로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Oh, 2012).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진로효능감은 Lee와 Lee(2000)가 Taylor와 Betz(1982)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신적인 신념을 설명하는 네 가지 구인(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Kim, 2012). 개인마다 다르게 지각된 진로효능감은 현재와 미래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유형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2012). 또한 진로효능감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Oh, 2012)에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수준도 높다고 하였으며, 또한 Lee(2011)도 남녀 대학생 모두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진로효능감이라는 것을 밝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진로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진로를 둘러싼 작업과정을 회피하게 되며, 진로결정을 지연하거나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목표 선택과 관련 직업 정보가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2.3. 전공만족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Han & Lee, 2013; Shin & Johnson, 1978).

전공만족도 관련 선행 변수는 Bang과 Park(2014)은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Han과 Lee(2013)가 개발한 학과 만족 구성요인 중 일반만족과 사회적 만족으로 구분하여 전공만족도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Han과 Lee(2013)는 Jang, Park, Na와 Lee(1986)가 개발한 전공 만족도는 Braskamp, Wise와 Hengstler(1979)의 학과 만족도를 한국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용변수가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사회인식만족, 학교만족의 5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전공만족은 현재의 대학생활 만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Logue, 2005). 자신이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라 하였다(Im, Park, & Eom, 2009).

또한 Mun(2015)은 전공선택이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전공 만족도는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여기서 그는 가장 이상적인 전공선택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내재동기에 근거한 취업, 급여와 같은 외재동기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전공선택과 진로효능감과 함께 전공만족 또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음을 시사해 주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조리외식 전공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효능감과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독립변수인 선택 동기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하위 변수로 반영하고, 매개변수인 진로효능감에서는 목표선택, 직업정보를 하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전공만족은 전공 수업만족과 교육지원 만족을 하위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변수의 선정은 앞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참고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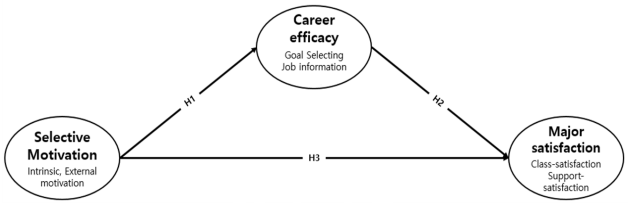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1.1. 대학선택 동기와 진로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Yoon(2015)은 전공선택 동기가 적성에 맞거나 흥미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내재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전공과의 적합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같은 동기가 강할수록 진로효능감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Lee(2007)는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요인 중 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동기에서 성별과 학년은 기각되었고, 사회적 동기로서의 외재적 동기가 평균이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고 하였다. Sin(2012) 또한 연구에서 의료관광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중 내재적 동기가 진로결정 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Han(2014)은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지능, 장래직업과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공 만족과 함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긍심과 효능감 또한 높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전공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재적 동기나 외재적 동기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재적 동기에 의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아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받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적 준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1)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내재적 동기는 목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외재적 동기는 목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내재적 동기는 직업정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외재적 동기는 직업정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진로효능감과 전공 만족과의 관계 연구

Park(2011)은 대학생의 대학전공만족은 대학생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진로효능감과 연관을 갖고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높으면 진로효능감 또한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Mun(2015)은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또한 높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Ko와 Kim(2013)은 전반적인 대학 전공만족이나 대학 행

정・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성별, 학년, 전공, 대학선택의 경위와 같은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에 대하여는 대학선택의 경위나,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고, 대학선택의 경위에 따라서 전공 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Hwang(2014)은 전공만족도의 차이 분석결과, 학년별, 학업성적, 전공선택 동기, 휴학에 대한 경험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학업성적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공선택에 대해 더 뚜렷한 전공선택 동기가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in, 2012), 또한 전공만족도에도 유의적인 영향(Lee, 2007; Mun, 2015)을 미친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진로효능감은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목표선택은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직업정보는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목표선택은 교육지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직업정보는 교육지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Kim과 Im(2013)은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전공만족 수준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진로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유연한 적응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Oh(2012) 또한 진로의사결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차이를 밝힘으로써 대학의 진로상담 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전공만족에 따라 상이하므로 진로 결정시 차별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개인별 변화 유형에 있어 성별에 따라 전공선택과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2012)은 연구에서도 높은 전공선택 동기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전공선택과 전공만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Mun(2015)은 과제수행과 성취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전공선택 능력에 대한 신념에 따라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대학 전공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전공만족을 높여주는 촉진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3)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내재적 동기는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외재적 동기는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내재적 동기는 교육지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4: 외재적 동기는 교육지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대학선택 동기와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효능감은 진로결정과정에서 행동을 수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진로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인 매개적 효과로서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진로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지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전공선택동기와 전공 만족사이의 진로효능감의 매개적 효과를 유추할 수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4)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 사이의 진로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 H4-1: 내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2: 외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3: 내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4: 외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5: 내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6: 외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7: 내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 H4-8: 외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대상은 대학교 조리 외식창업 관련 전공자들로 전공수업을 1년 이상 수강한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전공교과목을 배우면서 조리・외식 관련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학생들로 수업 시작 전 충분한 공지를 통해 자신의 전공과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진로계획에 대한 목표 등이 뚜렷한 학생들로 진로 효능감과 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만족도가 높은 학생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2017년 5월 1일~5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였으며,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41부를 제외한 총 209부를 유효설문지로 반영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ong(2014)의 '전공선택동기', Kim(2012)의 '진로자기효능감', Han(2008)의 대학생활만족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정의와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3.3.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와 관련하여 적성, 흥미, 장래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의 개인적 동기와 전공의 인기도와 취업전망 등의 외부적 동기로 나누어 보거나(Ko & Kim, 2013), 본인 의지에 기한 자발적 전공선택과 타인의존에 기한 의존적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있다(Lee, 2011). 혹은 전공선택 동기를 적성, 흥미 등의 내재적 동기와 취업전망, 인기학과, 주변 권유 등의 외재적 동기로 보고 있다(Lee, 2011).

이 같이 구분되는 전공선택동기는 실제로 적성, 흥미, 장래희망직업, 자기개발가능성, 전공인기도, 전공공부정도, 성적, 장래취업전망, 주변권고, 가정형편 등이 주요 변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연구대상인 조리외식 전공 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대하여 연구한 Park과 Park(2015)의 연구결과를 모델로 하되, Ko와 Kim(2013)의 연구를 반영하여 개인적 동기와 환경적 동기 대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반영하여 측정한 결과로 정의한다.

그리고 측정도구는 전공선택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Lee (2007)가 제작한 검사도구를 Song(2014)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검사도구의 하위요인은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동기 5문항,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에 있어 내재적 또는 외재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2. 진로효능감

진로효능감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태도 및 인지적 능력, 자신이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정도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Cho & Lee, 2009). 진로효능감 검사 도구는 Jang, Im과 Song (1991)이 개발한 진로효능감 검사도구로 본 논문에서는 Bang과 Park(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효능감 관련 변인으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 그리고 준비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로 정의한다. 그리고 측정도구는 Kim(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은 11문항, 6문항, 3문항, 5문항 전체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3.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관련하여 Kang(2006), Kim과 Jung(2007) 등은 개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순수만족인 일반만족과 함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만족인 교과만족, 관계만족, 학교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Na(2013) 및 Jin과 Sung(2012)은 교과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으로 정의하였다. Son, Yang과 Choi (2013) 및 Yoon(2013)은 여기에 관계만족을 추가하고 있다. Bang과 Park (2014)은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 수업만족을 전공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볼 때, 학생들의 전공만족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사회인식, 진로방향 등과 같은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 학생들의 대부분이 1,2학년의 저학년인 점을 감안하여 전공만족을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으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로 정의한다. 그리고 측정도구는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n(2008)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Han(2008)이 사용한 도구는 전체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대학생활(6문항)', '대학교육의 질(6문항)', '행정・복지 서비스(5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검사도구의 척도는 Han(2008)의 연구에서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전공교육 만족 5문항, 행정복지지원서비스 5문항 등 총 10문으로 구성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통계분석 도구는 SPSS v.21.0과 AMOS v.21.0 그리고 MS Excel 2013을 이용하여 평균 분산 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계산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자료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 분석, 신뢰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이는 각 요인들의 검증을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조사에 응한 응답자 209명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해 보면, 성별은 남자 132명(63.2%), 여자 77명(36.8%)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95명(45.5%), 2학년 108명(51.7%)으로, 3학년 응답자는 8명(3.8%)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 항목은 조리 53명(25.4%), 외식 2명(0.9%), 조리외식 149명(71.3%), 기타 5명(2.5%)로 나타났으며, 평균학점은 4.0 이상 22명(10.9%), 3.5 이상 4.0 미만 54명(26.9%), 3.0 이상 3.5 미만 91명(45.3%), 3.0 미만 34명(16.9%), 무응답 8명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입학 결정의 영향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선택 131명(62.7%), 부모님 41명(19.6%), 선생님 15명(7.2%), 친구/선배 13명(6.2%), 기타 9명(4.3%)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교육수준에 대하여는 중학 졸업 12명(5.9%), 고등학교 졸업 68명(33.3%), 대학교 졸업 103명(50.5%), 대학원 졸업 21명(10.3%), 무응답 5명으로 조사 되었고, 응답자 본인의 가정 경제 수준은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명(12.0%), '중' 143명(68.8%), '하' 40명(19.2%)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	Percentage (%)
Gender	Male	132(63.2)	209 (100)
	Female	77(36.8)	
School year	Freshmen	95(45.5)	209 (100)
	Sophomore	108(51.7)	
	Junior	8(3.8)	
Major	Department of cookery	53(25.4)	209 (100)
	Department of foodservice	2(0.9)	
	Department of culinary arts	149(71.3)	
	Etc.	5(2.4)	
GPA	4.0 over	22(10.9)	201 (100)
	3.5~4.0	54(26.9)	
	3.0~3.5	91(45.3)	
	Less than 3.0	34(16.9)	
Admission decision	By oneself	131(62.7)	209 (100)
	Parents	41(19.6)	
	Teacher	15(7.2)	
	Friend/senior	13(6.2)	
	Etc.	9(4.3)	
Parent education level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12(5.9)	204 (100)
	Graduated from high school	68(33.3)	
	Graduated from university	103(50.5)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21(10.3)	
Level of family imcomes	Good	25(12.0)	208 (100)
	Fair	143(68.8)	
	Poor	40(19.2)	

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로 요인 적재량,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하여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고, AVE와 상관관계분석을 가지고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2.1.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Fig. 2의 모형 분석 결과 χ^2=522.280, *df*=215, CMIN/*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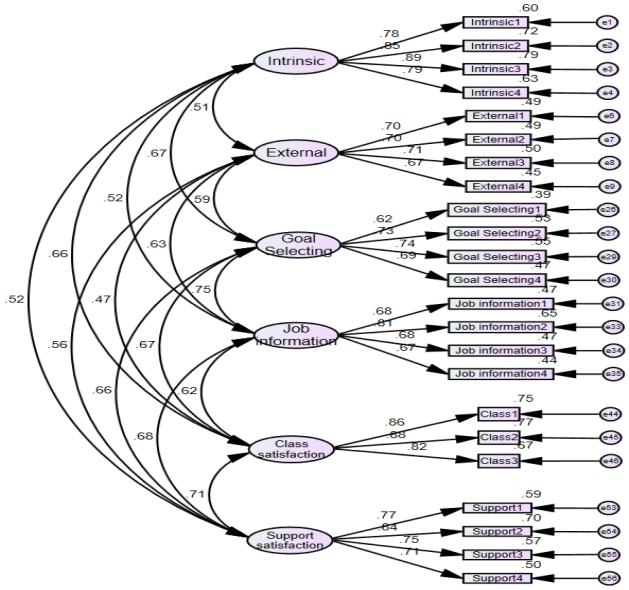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2.429(p<.001)로 나타났지만, TLI=.867, CFI=.887, RMR=.045, GFI=.832, RMSEA=.083(90%CI: .074～.092)으로 나타나, 분석에 나쁘지 않은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4.2.2.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의 요인별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 유의확률 p<.001로 유의함을 보여주었으며, 평균분산추출값 AVE는 0.5 이상(.596～.764), 개념신뢰도는 0.7(.855～.927) 이상 기준치 이상 산출되었고, Cronbach's α도 모두 0.7 이상으로 설문의 내적일관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2.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Table 3과 같다. 상관계수는 .379～.780로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 최댓값은 직업 정보 요인과 목표 설정 요인 간의 상관관계계수로 r=.754로 r^2=.568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AVE값(.596～.764)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상관계수 r±2 S.E 구간 사이에 1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본 연구 자료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3. 구조방정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Table 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GFI(goodness of fit index) 수치는 낮게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측변인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절대적인 설명력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간명성을 고려한 적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Cronbach's α	p
Selective motivation	Intrinsic 1	0.776		.760	.927	.893	
	Intrinsic 2	0.847	13.107				***
	Intrinsic 3	0.890	13.833				***
	Intrinsic 4	0.793	12.106				***
	External 1	0.703		.646	.879	.788	
	External 2	0.699	8.500				***
	External 3	0.708	8.586				***
	External 4	0.669	8.207				***
Career efficacy	Goal selecting 1	0.623		.611	.862	.804	
	Goal selecting 2	0.727	8.277				***
	Goal selecting 3	0.743	8.407				***
	Goal selecting 4	0.688	7.960				***
	Job information 1	0.683		.596	.855	.806	
	Job information 2	0.806	9.812				***
	Job information 3	0.684	8.609				***
	Job information 4	0.666	8.407				***
Major satisfaction	Class 1	0.864		.761	.905	.886	
	Class 2	0.876	15.855				***
	Class 3	0.816	14.317				***
	Support 1	0.771		.639	.876	.849	
	Support 2	0.835	12.144				***
	Support 3	0.755	10.921				***
	Support 4	0.710	10.209				***

*** p<.001.

합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간명성을 고려하며, 표본의 크기도 고려한 TLI와 RMSEA, CFI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MR=.054, GFI=.827, TLI=.857, CFI=.879, RMSEA=.087로 Fig. 3의 모형은 분석에 나쁘지 않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4.3.1.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은 목표선택 요인에 대하여 각각 유의확률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매개요인 직업정보에 대하여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모두 $p<$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Intrinsic	External	Goal selecting	Job information	Class satisfaction	Support satisfaction
Intrinsic	1					
External	.511*** (.039)	1				
Goal selecting	.672*** (.038)	.587*** (.037)	1			
Job information	.516*** (.035)	.627*** (.040)	.754*** (.039)	1		
Class satisfaction	.661*** (.048)	.465*** (.046)	.670*** (.046)	.617*** (.045)	1	
Support satisfaction	.524*** (.042)	.563*** (.046)	.662*** (.043)	.678*** (.045)	.710*** (.057)	1

*** $p<.001$ (S.E 값).

Table 4. Model fit coefficient

χ^2	*df*	CMIN/*df*	RMR	GFI	TLI	CFI	RMSEA(90%CI)
545.270	215	2.536	.054	.827	.857	.879	.086(.077～.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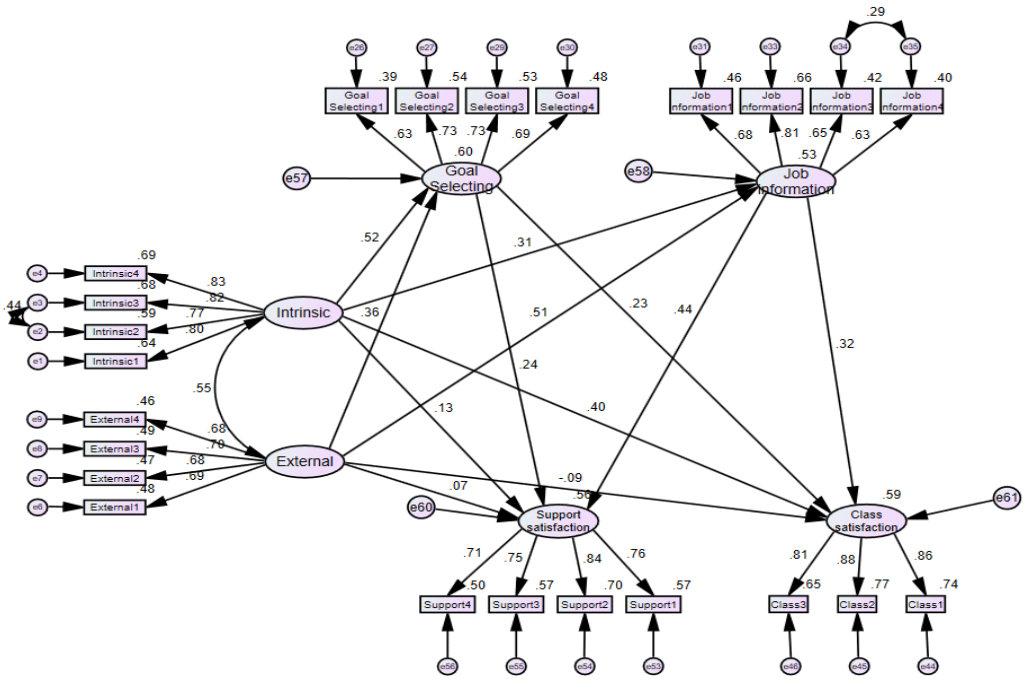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5. Path analysis results

	β	S.E.	C.R.	p
Goal selecting ← External	0.364	0.082	3.818	***
Job information ← External	0.514	0.097	4.813	***
Goal selecting ← Intrinsic	0.517	0.079	5.294	***
Job information ← Intrinsic	0.305	0.078	3.341	***
Support satisfaction ← Goal selecting	0.240	0.166	1.929	0.054
Support satisfaction ← Job information	0.437	0.149	3.717	***
Class satisfaction ← Job information	0.318	0.149	2.978	0.003
Class satisfaction ← Goal selecting	0.233	0.174	1.968	0.049
Class satisfaction ← Intrinsic	0.405	0.126	3.818	***
Support satisfaction ← Intrinsic	0.127	0.117	1.165	0.244
Class satisfaction ← External	0.067	0.135	0.566	0.572
Support satisfaction ← External	−0.093	0.143	-0.825	0.409

*** p<.001.

.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매개변수의 목표선택요인은 종속변수의 교육지원만족에 대하여 유의확률 p=.05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직업정보요인과 교육지원만족요인에 대해서 유의확률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보였다. 직업정보 요인과 목표선택요인은 전공교육만족에 대하여 각각 유의확률 p=.003, p=.049로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내재적 요인이 전공교육만족에 대하여 유의확률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보였으나, 교육지원만족에 대하여 p= .2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였다. 외재적 요인은 교육지원만족과 전공교육만족에 대하여 p=.409, p=.572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였다.

4.3.2. Sobel Test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두 요인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매개변수 각각의 요인 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Test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목표선택요인은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준다고 할 수 없다. 직업정보 요인은 외재적 요인에 대하여 전공교육만족(p=.048), 전공지원만족(p=.010) 두 요인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재적 요인에 대하여 직업정보요인은 전공지원만족(p=.019)에 대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전공교육만족(p=.061)에 대해서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준다고

Table 6. Sobel test result

Independent	Mediation	Dependent	Z	p
Intrinsic	Goal selecting	Support satisfaction	1.412	.158
Intrinsic	Goal selecting	Class satisfaction	1.258	.208
Intrinsic	Job information	Support satisfaction	2.346	.019
Intrinsic	Job information	Class satisfaction	1.873	.061
External	Goal selecting	Support satisfaction	1.375	.169
External	Goal selecting	Class satisfaction	1.282	.200
External	Job information	Support satisfaction	2.566	.010
External	Job information	Class satisfaction	1.980	.048

Table 7. Hypothesis result summary

Hypothesis			*p*	
H1	1-1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oal selecting.	***	Accept
	1-2	External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oal selecting.	***	Accept
	1-3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information.	***	Accept
	1-4	External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information.	***	Accept
H2	2-1	Goal selecting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049	Accept
	2-2	Job inform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003	Accept
	2-3	Goal selecting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pport satisfaction.	.054	Reject
	2-4	Job inform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pport satisfaction.	***	Accept
H3	3-1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Class satisfaction.	***	Accept
	3-2	External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Class satisfaction.	.572	Reject
	3-3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pport satisfaction.	.244	Reject
	3-4	External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pport satisfaction.	.409	Reject
H4	4-1	Goal selecting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lass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208	Reject
	4-2	Goal selecting between external motivation and Class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200	Reject
	4-3	Goal selecting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upport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158	Reject
	4-4	Goal selecting between external motivation and Support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168	Reject
	4-5	Job information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lass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061	Reject
	4-6	Job information between external motivation and Class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048	Accept
	4-7	Job information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upport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019	Accept
	4-8	Job information between external motivation and Support satisfaction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010	Accept

*** $p<.001$

할 수 없다.

4.4. 연구가설결과

본 연구 가설 검증 결과, Table 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설 1은 전공선택 동기와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1-1, 1-2, 1-3, 1-4는 각각 유의률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는 진로효능감이 종속변수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가설 2-1 '목표선택은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하여 유의확률 $p=.049$로 가설 2-2 '직업정보는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하여 유의확률 $p=.003$으로 가설 2-4 '직업정보는 교육지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었고, 가설 2-3은 $p=.054$로 유의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연구가설 2는 2-4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이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3은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 3-1 '내재적 동기는 전공수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유의확률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설 3-2 유의확률 $p=.572$, 가설 3-3의 유의확률 $p=.244$, 가설 3-4의 유의확률 $p=.40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보이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4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가설로써 4-6 '외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 4-7 '내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 4-8 '외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에 대하여 각각 유의확률 $p=.048$, $p=.019$, $p=.01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연구가설 4는 4-1, 4-2, 4-3, 4-4, 4-5를 제외하고 부분 채택되었다.

5.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 동기 요인 중 내외재적 동기가 진로효능감(목표선택, 직업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외재적 동기가 진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효능감(목표선택, 직업정보)이 전공 만족(교육자원 만족, 전공교육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효능감은 전공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효능감의 목표선택이 교육지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셋째, 전공선택(내, 외재적)동기가 전공만족(교육지원 만족, 전공 교육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외재적 동기는 교육지원 만족에 직업 정보와 전공 교육 만족 간에 진로효능감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가설과, '외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가설과, '내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가설과, '외재적 동기와 교육지원만족에 목표선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가설과, '내재적 동기와 전공교육만족에 직업정보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전체적으로 외식 조리 전공 학생의 전공선택이 진로효능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촉진 기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특히 매개 효과로서 전공선택과 전공 만족을 높여주는 매개요인으로서의 교육지원이 잘 될수록 진로효능감의 매개적 효과 또한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공선택에 따른 전공만족을 극대화시켜 줌을 실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공선택의 경우,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에 대한 부합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고, 외부의 권유나 분위기 등에 편승한 선택 동기를 가지고 선택할 때 진로효능감과 전공만족이 맞거나 원하는 만큼의 학습 성취를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의 취업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적성에 맞는 학력을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한 후,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과 준비를 바탕으로 직업 정보의 꾸준한 수집과 분석 등의 노력을 통해 단계별로 접근할 때 전공에 대한 만족과 동시 학습 성취도 또한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된 진로효능감의 목표 선택 요인의 전공선택에 따른 내・외재적 동기와의 결합은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점에서 선택적 사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결과에 따른 의의로 대학 진학을 통해 자신의 전공 선택이 직업으로의 이행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로효능감을 높여 진학 중심보다 학생 자신의 적성과 부합한 전공 선택과 진로 효능감을 갖고 볼 때, 일관된 전공, 진로계획, 수업만족과 일치된 계획에 의한 만족감을 단계적으로 높일 때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 효능감의 매개에 따라 전공만족감의 매개에 따라 전공 만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이 같은 시사점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공선택과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 효능감과 전공 만족 간의 높은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 속성을 현재의 학교 수업과 진로 지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 Park과 Eom(2009)이 대학생의 진로 효능감과 전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듯이 진로효능감이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진로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대학 전공 시기에 이루어진 진로발달이 졸업생이 되었을 때의 전공 만족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대학에 진학한 대다수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진로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대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직업의 특성을 전공과 연계되어 전공선택을 통한 자긍심과 적성과의 부합에 따라 이는 종국적으로 전공만족을 높이는 촉진 기제이므로, 이에 따라 진로효능감 또한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학교 진로 지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일부 전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을 가지며, 추후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ng, H. J., & Park, J. S. (2014).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of beauty maj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1), 101-109.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494-498.

Cho, T. Y., & Lee, M. S.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vocational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light services-related studies. *Journal of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7*(1), 69-86.

Han, E. S. (2008).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Han, Y. J., & Lee, J. H. (2013).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9*(2), 76-92.

Han, Y. J.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ion participatio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vocational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foodservice & culinary arts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Hwang, Y. M. (2014).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methods, decision-Making stages, and decision-Making styl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quality of undergraduates*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Im, E.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iagnosis tool for major fitness in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ies.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9*(3), 1-21.

Im, E., & Son, Y. M. (2000). *The development of tests for major department selec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Seoul,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m, E. M., Park, S. M., & Eom, Y. S. (2009).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department and job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Youth Research*, *16*(10), 33-50.

Jang, D. W., Park, J. H., Na, D. J., & Lee, Y. S. (1986). A preliminary study of a major-adjust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aptitude discrepancy. *Student Life Institute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4*, 1109-1154.

Jang, S. M., Im, D. S., & Song, B. K. (1991). *Study on standardization of career maturity test(RR91-05)*.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ang, S. S. (2000).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f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4*(3), 671-708.

Jin, S. H., & Sung, E. M.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th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cational Education Study*, *31*(1), 1-18.

Kang, Y. S. (2006).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Jeonbuk area.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Study*, *15*, 1-22.

Kang, S. K. (2005). *Lifetime income, determine the major selection.* Seoul, Korea: KPub.

Kim, A. Y. (2010). *Academic motivation-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Seoul, Korea: HAKJISA Corp.

Kim, H. J., & Yoon, H. H.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4), 65-80.

Kim, M. S. (2012).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based upon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Kim, M. S., Park, S. M., Wang, C., Seo, H. Y., Joo, Y. J., Lee, K. Y., & Choi, E. S. (2010).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view of occupation for EMT students. *The Korea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14*(3), 29-40.

Kim, S. K., & Jung, E. Y. (2007).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lf-competenc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Journal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Research Institute*, *3*, 31-52.

Kim, Y. M., & Im, M. R. (2013). The effects of tourism college selection motivation on students' satisfaction and loyalty.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7*(2), 361-379.

Kim, K. H., & Oh, B. D. (2013). College major selection: Gender and socioeconomic discrimination among Korean matriculat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4), 59-84.

Kim, S. J., & Moon, H. K. (2005). Status and consciousness of freshman year 2004. *The Journal of Creativity Development Research*, *8*, 1-48.

Ko, B. S., & Kim, D. H. (2013).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practical class attitude of major for culinary and baking college students -A case study of freshmen of "D college" in Daegu city-. *Journal of the Korean Foodservice Association*, *9*(1), 57-69.

Lee, J. H. (2011). A study on student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environment in a cooking and food service program.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7*(2), 74-84.

Lee, K. H., & Lee, H. 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Lee, K. N., & Jung, C. Y. (2009).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Society for Korean Agricultural Education*, *41*(1), 87-110.

Lee, M. A. (2007). A study on the process of exploring and deciding college majors in the division system as academic organ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20*(3), 81-101.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Mun, J. H. (2015).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occupation selection: Focused on hospitality & tourism major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17*(1), 323-347.

Na, J. K. (2013).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th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students -Focused on the culinary and baking science and art major-. *Foodservice Management Study*, *16*(6), 239-264.

Nam, K. G. (2008). The effect of patents'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al status: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17*(1), 61-92.

Oh, E. J. (2012).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gender on change pattern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s in the college career course : The application of Growth Mixture Model*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Park, I. S., & Park, Y. S. (2015). The influence that the motive of major selection takes on a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oyalty to major in case of airline service major.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9*(2), 107-120.

Park, S. S.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Seo, B. W. (2013).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Journal of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3*(2), 65-81.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i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Sin, J. (2012).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occupation selection: Focused on hospitality & tourism major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17*(1), 323-347.

Son, S. H., Yang, J. M., & Choi, J. N. (2013). The influence on conclusive department selection factors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 majoring in airline service. *Tourism and Leisure Study*, *25*(6), 387-405.

Song, Y. J. (2014).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Statistics Korea (2015). *A combination of major and profession.*

Taylor, K. M., & Betz, N. E. (1982). Concurrent validity of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for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6), 626-635.

Yoon, J. H. (2013).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choice factor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attitude achievement. *Tourism and Leisure Study*, *25*(4), 239-257.

Yoon, K. H. (2015).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person-university fit*, *person-major fit*, *major satisfaction and job seeking efficacy in foodservice & culinary arts student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2017년 7월 04일 접 수
2017년 7월 22일 1차 논문수정
2017년 8월 13일 논문 게재확정